

민주당 ‘영산강살리기’ 고민되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당력을 모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고민이 지난 20일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예상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애초 민주당 소속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용히 지나간 것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지사의 찬성 입장을 잘 알고 있는데 야당과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박 지사는 “영산강 사업에 한해서는 당 방침과는 좀 다르며 영산강 사업을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아주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대안화사업의 일환으로 평가, 강력히 반대하고

박준영 지사 국감서 “당론과 달리 지역발전 위해 찬성”

민주당 “4대강 반대 당론 바꿀 수도 없고...” 내심 공감

한나라 “영산강은 찬성이고 낙동강은 반대냐” 반박

있으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현 정부의 사업과는 다르지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수질 개선과 뱃길 복원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으며 당의 지역적 기반인 광주·전남 주민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영산강의 주요 터전인 나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1일 “4대강 중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250만 영산강·섬진강 유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운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자체 및 전반에 대해 부정·반대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

의 원칙에 따라 4대강 사업의 변경·축소·수정에 초점을 맞춰 구분 대응하는 것이 대안화 반대 주장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수질개선을 통해 식수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강·낙동강·금강 등 3대강 정비사업과 식수 이용이 불가능한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부적합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및 투자 목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의 물길을 이용하면서 수질개선 및 재해예방에 투자하는 정도에 불과한

만큼 오히려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상당수가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4대강 사업’ 반대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는 같은 민주당과 전남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를 교묘히 이용하며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만 하고 낙동강은 내버려 두자는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4대강 사업 반대’ 당론을 ‘3대강 사업 반대’로 수정할 수도 없고 영산강 문제 때문에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다”며 “하지만, 낙동강이나 영산강이나 단순한 강 살리기 차원을 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호치민 묘소에 헌화하고 있다.

연협뉴스

MB, 호치민 묘소 참배

정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베트남 방문시 묘소를 찾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식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묘소 헌화하고, 시신이 안치된 유리관 앞에서 묵념했다.

이같은 배경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입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모들은 참배를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베트남 국민의 지도자로 상징적인 분인데 뭇분 착각 수는 없다”는 취지로 참배를 결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협뉴스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베트남 하노이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 40분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주석궁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지난 2001년 편득 트영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의 한국방문 때 구축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이같이 격상하기로 하고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노이시 ‘호치민 묘소’를 방문하고 헌화했다. 공산당 장군자인 호치민 전 국가주석은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한국 역대대통령의 호치민묘소 참배가 주목받는 이유는 베트남전에 31만여명을 파병했던 참전국으로서 베트남과의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측면에서 상

평가 라운지

이용섭 대규모 산행...출정식?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의 행보가 수상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지지자 1천여명과 함께 무등산을 등반하며 쓰레기 줍기 등 정화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담쟁이 산악회’가 주축이 됐으며, 지지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규모 등반이 등산객들의 불편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삼삼오오 소규모로 무등산 전역을 등반하면서 쓰레기 줍기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오전 11시에 무등산 중머리재에서 모여 우의를 다질 계획이다.

이 의원은 다음날인 25일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지방정가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세 과시를 통한 ‘출정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노회찬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낼 것”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1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시대 낡은 정치를 걷어낼 새로운 진보정치를 위해 광주시장 등 16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책임질 진보후보들을 적극 출마시키겠다”

고 밝혔다.

노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생대장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선거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의 독선을 심판할 새로운 대안정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선거다”면서 “광주를 새로운 진보정치의 고향, 민생정치의 고향으로 만들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찬용 “연말께 거취 결정”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21일 “광주 곳곳을 걸으면서 민생대장정을 펼친 결과 광주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동북아 시대를 앞두고 광주의 브랜드 디자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8월31일부터 10월18일까지 광주 곳곳을 둘러보면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기존 도시계획 용역들을 모아 광주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전 수석은 광주시장 출마여부에 대해 “MB정부의 퇴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통합작업에 힘을 모으고 이후 (시기가 되면) 입당과 출마의 뜻을 밝힐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박정욱기자 jwpark@

“북미회담 적극 협력”

北 김계관 밝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앞으로 성공적인 조미(북미)회담이 진행될 때까지 우리가 적극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19일 밤(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 ‘온더 레코드’ 프로그림과의 간이 인터뷰에서 “조미 두 나라 인민(국민)의 공동 목표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상의 언급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자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의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지난 13일 북한을 방문할 당시 동행한 폭스뉴스 기자의 ‘미국 국민에게 직접 전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다.

북한 리 군 외무성 미국국장이 26~27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동북아 협력대화(NEACD)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북미간 접촉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이 언급은 북미 대화를 원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다. 【연협뉴스

최첨단 토지 정보 한눈에

전남도 27~28일 전국 첫 ‘토지박람회’ 개최

첨단 공간정보(GIS·Global Information System) 기술과 함께 최고급 토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토지박람회’가 전남에서 개최된다.

전남도는 21일 비교우위에 있는 전남도의 투자 적지를 널리 알리고 토지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도청 운선도 홀 등에서 ‘2009 녹색 전남 토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공유지관 ▲한계농지관 ▲공간정보관 ▲전

국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전시관 등이 설치돼 전남도의 용도별 토지자원을 조감도와 위성영상 사진 등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다.

전시 행사 이외에도 ▲공간정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발공시지가 조사업무 워크숍 등이 열린다. 또 이 기간 중 각 시·도별로 가장 우수한 측량팀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는 ‘전국 디지털측량 경진대회’도 함께 치러지고, 전남도와 목포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적공사 등이 산·학·관·도

공간정보 발전 협약 체결식도 갖는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낙후지역 특별법에 포함된 목포·영암·신안 등의 국유지 등을 볼 수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적지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첨단 공간정보 신기술 체험과 함께 세계 최고의 투자 적지를 염선해 전시하는 만큼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박람회를 통해 전남지역의 투자 적지를 널리 알려 투자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낙후된 전남도의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마시자! 알칼리 이온 시스템

물속 건강을 위한 알칼리수
피부 건강을 위한 산성수

물속 노폐물만 빠져 나가고 건강과 아름다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알칼리이온이 전해지는 것이 양이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물속의 양이온은 양이온이 양이온, 나트륨, 칼슘 등 양이온은 고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약학박사 최영희 사장, 유전공학박사 최영희 사장, 유전공학박사 최영희 사장, 유전공학박사 최영희 사장.

2주 동안
무료 체험단 모집
광주지사 1588-4228

특/기/세/일
695,000 원

(구)동양과학
(주)이오니아

침하된 구조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다량물 용티그런 공법은 국내에서 개발한 지반소독색상법 인형경 공법

1. 현장조사
2. 시공방법
3. 효과

대한건설공사
www.daejeon.com

대표: 최영희 (011-604-0287)

대리점 및 지사 모집 T 1002571-3001-2 / HP 011-604-0287